

# 광주·전남 헌혈 급감...혈액 수급 '빨간불'

헌혈 인구 2년 연속 줄어  
올 목표 22만여명 못채워  
10~20대 인구 감소 주 원인  
30대 이상 중년층 참여 절실

헌혈 비수기인 겨울방학을 앞두고 벌써부터 광주에서 혈액 부족 사태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가뜰이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헌혈인구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헌혈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수는 2017년 22만 266명에서 지난해 20만 6743명으로 6.1%(1만 3523명) 급감했다. 올해도 지난 12일 기준으로 19만 6065명이 헌혈을 한 상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2명이나 줄었다. 올해엔 목표 혈액자 수인 '22만 2410명' 달성도 어렵다는 게 혈액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전남혈액원의 혈액보유량도 불과 4일 분으로, 적정보유량(5일)보다 하루 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혈액공급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도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헌혈 비수기인 방학시즌마저 겹치면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겨울시즌은

다른 계절에 비해 혈액 사용량도 높은 계절이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선 올 겨울 시즌엔 혈액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헌혈자 감소 추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0~20대 인구 감소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적십자사 2018년 혈액사업보고서의 연령별 헌혈 비율을 살펴보면 20~29세가 104만 6323명(39%)으로 가장 많았으며, 16~19세(79만 4647명)도 29.6%였다. 10대와 20대의 헌혈만 계산하면 184만 970명으로 전체 헌혈 비율의 6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2017년(193만1531명)을 비교하면 10대

와 20대 헌혈 인구수는 9만 561명(4.6%)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혈액원은 겨울철 지역 내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수혈을 필요로 하는 암환자, 심장질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10~20대 헌혈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요구된다"면서 "동절기의 경우 쌀쌀한 날씨로 인해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학교까지 방학에 들어가면서 혈액이 가장 부족한 시기다.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아기 신타들 노인 요양원 성탄 공연 성탄절을 앞둔 23일 광주시 동구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호) 학생들이 용산동의 노인 요양시설인 용연실버빌을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한 뒤 어르신들 앞에서 앙증맞은 표정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장하연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경찰 인사...이은정 경찰대학장 역대 두번째 여성 치안장관

장하연(사진)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정부는 23일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을 경찰대학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이은정 신임 경찰대학장은 이금형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치안정감이 됐다. 목표출신인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

(치안감)은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내정됐고, 이준섭 경찰대학장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내정됐다. 광주출신인 배용주 경기남부지방청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6명으로, 잠재적인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



감 승진 인사도 함께 됐다. 김교태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경무관), 임우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무대리(경무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직무대리(경무관)는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직무대리 직함을 뺐다. 강황수 경찰수사연수원장(경무관), 윤동춘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경찰, 사건 무작위 배당 '수사팀 고르기' 필수 봉쇄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초부터 사건이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접수 순서대로 사건이 경제팀이나 강력팀 등에 배당됐다"며 "이로 인해 일부이긴 하지만, 사건이 적은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언제 접수하면 어느 팀에 배당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무작위 배당은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적용된다. 신고나 검거로 접수되는 사건은 현장 출동팀이 계속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작위 배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사건 배당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경찰은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무작위 배당을 시범 운영한 뒤 보완해 내년 초 전국에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 담당자가 '사건 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적은 뒤 다른 팀이나 계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10월부터 '범죄 정보 분석시스템'을 개편해 수사관이 입수한 정보를 본인이나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달뜨기	05:19
해질	17:25	달지기	15:53

감기 주의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12	보성	맑음	-4/10
목포	구름맑음	1/9	순천	맑음	0/12
여수	구름맑음	3/10	영광	맑음	-2/9
나주	맑음	-4/10	진도	구름맑음	1/9
완도	맑음	2/11	전주	구름맑음	-1/10
구례	맑음	-4/12	군산	구름맑음	-2/9
강진	맑음	0/12	남원	구름맑음	-3/11
해남	구름맑음	-3/11	축산도	맑음	5/9
장성	맑음	-3/1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면바다(북)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면바다(남)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서부	안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동~동	1.0~1.5
	면바다(동)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 생활지수

- 매우높음
- 높음
- 니뽀름
- 낮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34	00:05
여수	01:11	07:57
	13:58	19:54

◇ 주간 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	☁	☀	☀	☁	☁	☀
1/12	5/5	0/5	-2/8	2/8	4/12	0/5

## 눈 대신 미세먼지 '그레이 크리스마스'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눈 대신 초미세먼지가 잔뜩 끼는 이른바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크리스마스 당일과 이브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이 끼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눈을 기대하기 힘들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크리스마스 당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선 눈 대신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진도·순천·여수·완도·강진·장흥·해남·고흥·보성 등 전남

일부지역에선 오후부터 다음날인 2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 1971년부터 48년 동안 성탄절에 눈이 내린 해는 13번 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크리스마스인 25일 까지 초미세먼지(PM2.5)도 '나쁨'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광주 초미세먼지가 가스를 뿌리겠다.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현영 기자 young@

## "광주·전남 일부고 시험 문제집 베끼고 특정학급에 힌트"

학벌없는 시민사회 대책추구

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일부 고교의 허술한 시험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중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가 하면 일부 학급에만 시험 힌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A고교는 올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등 세 번의

시험에서 생명과학 과목 재시험이 이뤄졌다. 해당 과목 교사가 배제 절반에 달하는 문제를 특정 문제집에서 베껴 출제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재시험을 결정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전남교육청은 실태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학업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판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